

[정보·과학]

이승헌의 뇌과학 칼럼



교육현장 '뇌 기반 교육'으로 전환을

뇌 과학의 발달에 따라 뇌의 신비가 밝혀지면서 선진국에서는 여러 분야에 이를 속속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분야가 교육이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뇌의 성장단계에 맞춘 '인지발달 교육법', '마음과 뇌, 교육(Mind, Brain & Education)'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학문이 부상하고 있다. 이미 하버드대 교육대학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MBE프로그램'이 있고, 국제MBE협회도 결성되어 있다. 이 같은 뇌 기반 교육이 주목을 받으며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21세기가 그 무엇보다 '두뇌의 힘'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국경과 이념의 장벽을 초월하여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가는 시대이며 개인의 창의성과 재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는 시대이다. 또 앞으로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 상황 적응력과 문제 해결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더 크게 요구된다. 따라서 교육 분야가 모든 창조성의 근원인 뇌의 활용과 개발에 활발히 나서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다. 지난 25년간 현대대학과 뇌호흡을 보급해온 필자는 일찍이 '뇌의 시대(Century of the Brain)'를 예견하였고, 1990년대 초에 '한국뇌과학연구원'을 설립하였다. 필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두뇌개발 프로그램인 '뇌호흡'을 더욱 체계화하고 발전시킨 곳이 바로 이곳이며, 뇌의 활용과 개발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어 이제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또 '국제평화대학원대학교'에는 올해 '뇌교육학과'가 개설되어 뇌를 기반으로 한 뇌교육을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두뇌강국'으로 이끌 준비를 더욱 활발히 하고 있다.

'뇌교육'은 인간의 모든 정보체계와 기능을 총괄하는 뇌를 기반으로 한 교육이다. 뇌의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 뇌 안에 잠재된 개인의 재능을 이끌어내는 21세기의 새로운 교육방법

암기 위주 좌뇌 교육서 벗어나 좌·우뇌 균형각각·재능 일깨워 21C '두뇌강국'으로 거듭나야

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뇌교육은 집중력 저하, 좌우뇌의 편향성, 인성문제까지 해결해 준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서구 선진교육현장에서 한국의 '뇌호흡'에 열광을 하는 이유이다. 현재 뇌호흡은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브라질, 독일 등 세계 각국에서 일반인들에게는 두뇌 건강법으로, 교사들에게는 뇌 기반교육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는 머지않아 뇌를 기반으로 한 뇌교육이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될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나라는 앞으로 군사강국도, 경제강국도 아닌 두뇌강국이 되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뇌를 잘 활용하는 나라, 타고난 뇌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뇌의 잠재성을 가장 잘 발휘하는 나라, 뇌에 담긴 평화와 창조성을 가장 잘 발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두뇌의 힘'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21세기 인류의 미래를 평화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교육현장도 논리, 수리, 주입식 학습과 암기 중심의 좌뇌에 편향된 교육체계에서 벗어나 좌우뇌의 통합적 활성화를 통한 균형잡힌 감각회복과 잠재된 뇌의 기능을 일깨우는 '뇌 기반교육'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 우리에게 뇌 두뇌혁명을 위한 교육, 새롭고 높은 문화 창조를 위한 뇌교육이 필요하다. 이 뇌교육에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국제평화대학원대학교 총장, 한국뇌과학연구원 원장>

이통사 '고객 쟁탈전' 본격화

KTF·LGT이더 SKT도 보조금 1만~5만원 올려

SK텔레콤이 '보조금 전쟁'에 뛰어들면서 이통 3사의 고객 쟁탈전이 본격화됐다.

SKT는 지난 21일부터 가입기간 8년이상·월평균 휴대전화 사용요금 7만원 이상인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1만~5만원 더 추가로 하는 약관을 신고했다. 장기·우량 가입자들이 경쟁사로 이탈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1주일간 시장을 지켜본 결과, 자사의 장기·우량 가입자들이 경쟁사로 속속 이탈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7만원 미만을 쓰는 이용자들의 경우 1만원씩 보조금을 깎아 사용 기간 등급에 따라 8년 이상 구간을 신설해 이들은 보조금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이통통신 3사는 지난달 27일 보조금 부분 합법화 이후 처음으로 정보통신부에 신고했던 이용약관을 모두 변경, 보조금을 인상해 이른바 '보조금 전쟁'에 본격 돌입했다.

<불법 보조금 여전> LG텔레콤 호남지역 대리점협의회 소속 회원 40여명은 지난 21일 SKT 서부마케팅본부와 KTF 광주본부를 향의 방문했다. 대리점과 산하 판매점들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고객 이탈 및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LG텔레콤 호남지역 대리점 연합회 소속 회원들은 "두 통신사 대리점들이 정보통신부에 신고한 약관에 따른 보조금 이외의 25만~27만원에 이르는 높은 장려금을 재원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예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신규 고객이나 1년 6개월 미만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불법적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LG텔레콤 호남지역 대리점협의회 이상구 부회장은 "SKT와 KTF 지역본부는 산하 대리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불법적 판매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광주·전남지역 기업·공공기관 10곳중 8곳 불법 S/W 사용

<소프트웨어>

작년 불법복제로 305억 피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 1천219만711명. 만 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수 3천301만명. PC 보급률 78.9%.

지난 22일 '제 51회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정보화 한국의 현 주소다. 최근에는 초고속 인터넷을 휴대 전화처럼 이동 중에 쓸 수 있는 와이브로(Wibro·휴대 인터넷)서비스가 이뤄지는 등 정보화 선진 대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하지만 음악·영화와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등 각종 부작용 또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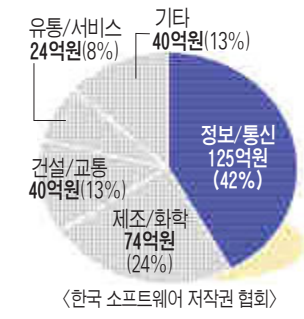
<백신 프로그램, 정품 구입하면 바보?> 전남 체신청이 내놓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단속 결

과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불법 복제율은 12.61%. 지난 1월 10.59%·2월 11.77%·3월 14.34%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적발 기관으로 보면 78개소에 대한 단속 결과, 74.3%인 58개소가 적발됐다.

지난해도 비슷하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불법 복제율은 17.52%지만 유통·건설·금융·공공기관·정보통신업체 등 260개소 중 78.8%인 205개소가 적발됐을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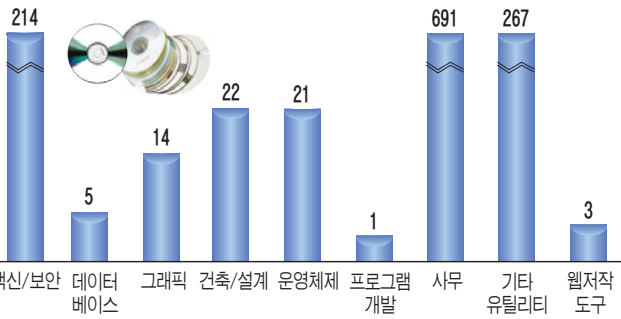
특히 지난해 해킹이나 바이러스로부터 PC를 보호해주는 백신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율은 23%로, 그래픽 프로그램(21.54%)·사무용 프로그램(21.33%)보다 높았다. 바이러스의 특성상 백신 프로그램의 주기적 업데이트는 제쳐두고라도 상

불법 S/W 침해금액 현황



<한국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

2005년 광주·전남 S/W별 불법복제 현황



당수 이용자들은 여전히 불법 복제된 백신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내놓은 'SW 정품 사용 실태 및 의식 조사 연구'에서도 지난해 국내 SW 불법 복제율은 32.2%로 지난 2003년 35%, 2004년 33.7%보다 낮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조사됐다.

<저작권 침해 비용도 늘어=불법 복제 등으로 피해를 입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밝힌 지난해 불법 복제 등으로 인한 SW저작권 침해 금액은 305

억8천600만원에 달한다. 그나마 지난 2004년 386억5천200만원에 비해 낮은 금액.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액은 지난 2000년 88억1천만원에서 ▲2001년 180억7천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002년 138억6천600만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2003년 320억8천400만원으로 급증했고, ▲2004년 386억5천만원에 달했다가 지난해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전남체신청은 "불법 복제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신문협회 'NIE교실' 참가자 모집

한국신문협회는 광주를 비롯, 전국 6개 지역 초·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NIE 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NIE 교실은 광주·춘천·대구·부산·대전·전주 등 6곳에서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매주 둘째주·넷째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동안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는 4학년 이상으로 초·중학교 각 50명 이내.

강의는 신문협회 NIE 전문 강사가 나서 ▲신문이란 ▲신문 읽기 ▲꿈-진로 지도 ▲약속 ▲선물 등의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다. 장소는 광주의 경우 초등학교는 무등도서관 독서사랑방, 중등학교는 산수도서관 5층 세미나실.

NIE에 관심있는 학생들은 오는 29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e 메일(webmaster@presskorea.or.kr)이나 팩스(02-720-3291)로 보내면 된다. 참가 문의(02)733-2251~2

Large advertisement for 'Mekkeikrin' (메케이크린) featuring various services like '수도 배관' (water pipes), '배수 배관' (sewer pipes), and '배수 정수기' (water purifier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services.